



검찰연합일보 모바일 보기



고위공직자범죄신고  
02-6320-0200



검찰  
PROSECUTION SERVICE

##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 비용 250만원까지 지원...변호사 연결

##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전세사기-강동전세 특별법 개정 촉구

정부가 소송 지원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연결하고, 수임료를 2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사망 임대인의 피해자들에게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 명령·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회생·파산,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지원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업

### 사망 임대인 피해자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절차 대행 심리 상담·정신과 치료비용 지원도

하는 변호사를 연결해주기로 했다. 이때 수임료를 2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소송 지원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로부터 피해자 결정문을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를 연결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지원한다. 선임 신청에 필요한 법률 조치를 대행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의 최초 보수를 정부가 지급한다. 동일한 사망 임대인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 공고를 통

해 피해자를 모은 뒤 공동으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게 된다. 1차 정기공고는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신 의학 전문의로부터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진료비, 약제비(30만원까지 전액·초과 시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 전화(☎1670-5724)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결해 3회 상담을 지원한다. / 송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

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 결과 김씨는 2019년 2월14일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 김종현 기자

### 김기현 대표, "총선 패배하면 정계은퇴로 책임"

국민의힘은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현재의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당 쇄신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석이 된 주요 당직에 수도권·충청권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는 한편, 민심을 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함으로써 당정관계에 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김 대표를 중심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받아들여 변화와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선 당 혁신기구와 총선거확단을 출범시키고,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정책정당'으로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당과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윤 원내

대표가 전했다. 특히 김 대표는 "총선에 패배할 경우 정계 은퇴로 책임을 지겠다"며 "내년 총선 승리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수의 진'을 치고 강력한 당 쇄신을 통해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결의를 보이면서 자신을 향한 보선 패배 책임론을 돌파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김 대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고 한다. 의총에선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대표 사퇴 요구가 나왔다. 전날 정 책위의장과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들의 총사퇴만으로는 당 쇄신 동력을 얻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김 대표를 중심으로 당 쇄신과 당정관계 변화를 모색하는 데 대해 "최종적으로 의원들이 컨센서스(공감대)를 이뤘다"고 윤 원내대표는 덧붙였다. / 박재호 기자

## 尹대통령, 공개일정 없이 숙고...용산발 쇄신 향배에 쏠리는 시선

### 외부일정 없이 수석비서관회의·주례회동 등 내부 통상일정만 소화

집권 여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일성으로 '변화'를 주문하고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이 조용히 '용산발 쇄신'을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요 임명직 당직자들의 사퇴를 비롯한 인적 쇄신 작업을 진행하고 김기현 대표가 이른바 '당-대'(여당과 대통령실) 관계의 변화를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민심을 다시 품을 방안을 놓고 윤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공개 일정 없이 통상 업무를 보면서 향후 국정 운영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

다. 이날 오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와 총리 주례회동 등 내부 일정을 잇달아 소화하면서 각종 보고를 받고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중순 예정된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방한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 충돌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 속에서 연기되면서 관련 일정이 취소된 여파이긴 하지만, 대통령실은 별도 일정을 채워 넣지 않았다고 한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예상보다 큰 격차로 패한 점을 윤 대통령과 참모들 모두 결코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대목으로 받아들

여진다. 윤 대통령이 주문한 '변화'는 여당에서 주도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패인 분석과 쇄신 방안 모색 작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변화를 주문하며 "차분하게 지혜롭게"를 강조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김기현 2기 체제'의 평가와 관련해서선 일단 쇄신의 결과물을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안 없이 체제를 무조건 흔들고 바꾸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방향이라며 변화와 쇄신이 혼란의 지속으로 이어지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는다는 게

윤 대통령의 신념이지만 이번 보선 참패, 총선 준비 일정 등이 종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교체가 더 서둘러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음 달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나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등을 필두로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참모진의 연쇄 사직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현직 장관들의 출마를 위한 행보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 경우 대통령 참모진과 내각이 자연스럽게 개편될 수밖에 없는데, 일부에서는 개각 역시 중폭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의 '키워드'가 무엇일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 이윤성 기자

Hello, 미래!

우주 여행을 떠나고, 로봇 친구를 사귀고  
더 큰 세상을 만나는 미래

미래는 지금, KDB산업은행에서  
잘 잡고 있습니다

내일이 보고 싶다면 KDB산업은행

# '세종청사 첫 출근' 유인촌 "가슴 뛰다...문화 중심되도록 할 것"



## 청사 로비서 직원들 꽃다발 전하며 환영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 출근은 처음이어서 굉장히 가슴이 좀 뛰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취임식을 앞둔 이날 오전 8시50분께 문체부 세종청사에 출근해 "세종시가 만들어진 다음 처음 와보는 것이고 직원들을 처음 만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청사 로비에 나온 문체부 직원들은 유 장관에게 꽃다발을 전하며 환영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1년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장관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두 번째 장관직을 맡게 됐다. 유 장관은 "마음은 의욕이 넘친다"며 "문화가 중심이 된 얘기는 20~30년 전부터 한 얘기다. 정말 문화가 중심이 되도록 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문화산업 시대이다. 수출되는 문화 산업 실적만 봐도 증명된다"며 "직원들이 일은 힘들어도 정말 뭔가를 이뤘다는 뿌듯한 느낌이 들도록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 통일부, '북러 무기거래' 정황에 '전세계 속여온 北실체 드러나'

통일부는 최근 미국이 공개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정황과 관련해 "전 세계를 속여 온 북한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병삼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 러시아와 무기거래에 대해 부인해 왔으나 관련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대변인은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과 무기거래가 중단돼야 한다면서 "특히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달 러시아에 군

사 장비와 탄약을 보냈고, 러시아도 북한에 물자를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지난 15일 상업 위성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 26일부터 이달 14일 사이 북한 나진항 부두에 대형 선박이 최소 4척이 드나들고 수백 개 컨테이너가 옮겨지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양국 무기거래가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의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자국 선박을 사용해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관련 물자를 조달받는 것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에 해당한다.

/ 한호석 기자

## 의대 신설, 27년 만에 빛장 풀릴까...카이스트 의대 신설 주목

### 교육부 "지역별 의료여건·대학별 교육여건 고려...복지부 지침 있을 듯"

국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27년 만에 의대가 새롭게 설립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그동안 의사 과학자 양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공계특성화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대(POSTECH)에도 의대가 신설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의대 정원은 전국 40개교에 3천5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8개교, 826명이다. 학교 수 기준으로는 20%, 정원으로는 27%가 쏠려 있다.

경기, 인천까지 고려하면 수도권 의대는 총 13개교, 1천35명이다. 절반에 가까운 의대, 3분의 1가량의 의대 정원이 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는 셈이다.

반면 전남과 세종에는 의대가 한 곳도 없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현재 의대 정원 구조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기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의대가 신설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대 정원이 2006년부터 3천58명으로 묶인 탓에 의대 신설 역시 30년 가까이 이뤄지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의대가 신설됐던 것은 1990년대 말이다.

1997년 성균관대, 차의과대, 가천대, 강원대, 을지대가 설립됐고, 1998년 제주대를 끝으로 의대는 신설되지 않았다.

2025학년도 의대가 신설될 경우 27년



만의 일이 된다. 일각에서는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경우 기존 의대에 나눠주는 것보다 지역 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기도 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지역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및 국립 의과대학 신설 촉구' 국회 포럼에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지역 간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존 국립의대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전남 지역에서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 신설을 희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북(군산대), 인천(인천대), 경기(대진대), 대전·충남(카이스트, 공주대), 경북(안동대, 포스텍), 경남(창원대), 부산(부경대)에서도 의대 신설 목소리가 작지 않다. 정부가 그간 의사과학자 양성을 강조해온 점을 고려해 볼 때 카이스트, 포항공

대 의대 신설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 3월 "카이스트, 포스텍 같은 과학대학에 의대를 신설해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강구하겠다"며 "(의사) 임금 체계 등도 장기적으로 계속 고민해볼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교육부로 통보하면, 교육부가 전체 대학의 신청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여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배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각 대학이 통상 전년도 4월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전망대로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하려면 내년 4월까지 증원된 의대 정원 규모를 배정하는 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 윤형찬 기자

## 다자녀 부모, 퇴직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 열린다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부모는 이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승진 과정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인사처는 우선 공무원 경력 채용 시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경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퇴직 후 3년 이내인 경우만 경력을 인정받아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데,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 중인 경우는 퇴직 후 10년까지 경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녀 출산·양육에 따른 경력 단절 기간을 고려한 조치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승진 시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다자녀 요건이나 가점 부여 방안은 각 부처가 정한다.

인사처는 또 공무원 승진을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최대 5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근무 성과에 따라 11년 이상 근무 시 3급 승진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배성윤 기자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의식 잃고 쓰러진 식당 종업원 구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식당 종업원을 구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백 대표는 지난 11일 충남 금산군의 한 식당에서 박법인 금산군수, 관광공사 본부장 등과 함께 식사하던 도중 식당 종업원

이 쓰러진 모습을 발견하고 긴급히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당시 백 대표는 관광공사와 금산세계인삼축제 특화 먹거리 개발 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금산을 방문 중이었다. 식당 측에서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다행히 종업원이 의식을 회복했고 이후 119에 인계했다고 더본코리아는 전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백 대표가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한 경험 등으로 심폐소생술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 광현준 기자

**SR의 새로운 변화**  
**대한민국 철도의 가치를 높입니다**

SRT를 통해 만나는 사회, 경제, 문화의 융·복합 서비스  
국민의 철도 플랫폼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갑니다.

CHANGE SRT

# 용산구, 핼러윈 인파 대책...현장상황실·비상통행로 운영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13일 구청에서 유관기관 합동 회의를 열어 핼러윈 데이 인파 대책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핼러윈 기간(10월27일~11월1일)에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계음식거리, 이태원로, 쿨론길 일대를 중점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합동 현장상황실을 운영한다.

회의에는 박희영 구청장과 임현규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최인수 서울교통공사 수송운영처장 등 50명이 참석했다.

주요 대책으로 ▲유관기관 합동 현장 상황실 및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차도·보도 통행 관리 ▲이태원 일대 보도·도로·시설물 점검 및 보수 ▲특별 가로 정비 ▲비상 도로 운영 ▲주정차 단속강화



용산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핼러윈 데이 대비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

등이 마련됐다.

현장상황실은 녹사평역 광장에 설치된다. 구·경찰·소방·군 3537부대 등으로 구성되며 군중 분산, 차도·보도 통행 관리 등을 총괄 지휘한다.

구는 이태원역 2번 출구 인근의 세계음

식문화거리 진입 이면도로에 경찰 안내방송차, 소방서 구급차를 1대씩 배치한다.

이태원119안전센터 맞은편-이태원교회 1개 차로는 보행로, 맥도날드 이태원점-이태원역 1개 차로는 긴급차량 비상도로로 운영한다.

오는 25일까지 녹사평역에서 한강진역까지 방범용 폐쇄회로(CC)TV 130대, 비상벨 25개의 고장 유무를 점검하고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집중 관제에 나선다.

용산경찰서는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용산소방서는 '긴급구조 약식통제단'을 가동한다.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도 비상대기 조를 편성해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이태원역과 녹사평역의 경우 승객 폭주 등 사고 우려 시 무정차 통과를 적극 시행하며 군도 필요하면 병력을 지원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27일부터 5일간 이태원 일대 추모객과 방문객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민·관·군·경이 함께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안내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조희성 기자



## 50년간 생활물가 변화는? 라면 8배·소주 14배로 올라

서민들이 많이 찾는 라면 가격은 약 50년간 8배로 올랐고, '국민주'로 꼽히는 소주 가격은 14배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물가협회는 창립 50년을 맞아 '10월호 월간 물가지표'에 지난 50년간 주요 품목 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수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품목별 가격 변동을 보면 라면 가격은 1978년 1개(120g) 100원에서 1993년 230원, 1998년 410원, 2008년 600원, 올해 820원으로 올랐다.

국수는 1978년 1봉(900g)에 155원이었으나 1993년 1천130원, 2008년 2천400원, 올해 2천790원이 됐다. 올해 가격은 지난 1978년과 비교하면 18배 수준이다.

소주 360ml 기준 가격은 지난 1974년 95원에서 올해 1천370원으로 14배로 올랐고, 맥주 가격은 같은 기간 360

ml 기준 235원에서 1천580원으로 7배로 상승했다.

고추장 가격은 1978년 500g 기준 200원에서 올해 5천490원으로 27배가 됐다.

농산물을 보면 쌀 가격은 1983년 1kg에 813원에서 올해 4천200원으로 5배가 됐고, 배추 2.5kg 가격은 1978년 267원에서 올해 3천980원으로 15배로 올랐다.

수산물 가격을 보면 '국민생선'고등어 가격은 30~40cm짜리 한 마리가 1988년 800원에서 올해 4천580원으로 6배로 올랐고, 오징어 1kg 가격은 같은 기간 600원에서 5천400원으로 9배가 됐다.

한편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올해 1천710원으로 1974년 206원의 8배로 올랐다.

/ 차현우 기자

## 美전략폭격기 B-52 이번주 국내 첫 착륙...북한 반발할 듯



미국 중부사령부는 미 루이지애나주 바크스테일 공군기지에 배치된 제2폭격비행단 소속 B-52H 폭격기 2대가 13개 협력국 공군 전력과 통합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 17일 개막 'ADEX'에도 참가

미군 전략폭격기 B-52 '스트래토포트리스'가 금주 내 한반도에 전개돼 국내 공군기지에 착륙한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군 전략자산인 B-52가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 훈련을 실시한 적은 많지만, 국내 공군기지에 착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

미군은 B-52의 국내 첫 착륙 사실을 공개할 예정이다.

B-52는 B-1B '랜서', B-2 '스피릿'과 미 공군의 대표적인 전략폭격기로 꼽힌다. 스텔스 성능을 갖춘 B-1B는 2016년 9월 오산기지에 착륙한 바 있다.

이번 B-52의 국내 착륙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열중하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B-52의 한반도 상공 전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북한은 이번 B-52의 국내 첫 착륙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민정혁 기자

## 안철수 "이준석, 대접해줬더니 오만방자...오늘 제명 요청"

### "자기선거 예측 못하는 '마이너스 3선'...내버려두면 또 내부충질"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6일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 분당질 치는 '응석받이'이자 자기 선거는 예측하지 못해 세 차례 낙선한 '마이너스 3선'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이 전 대표의 제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1만6천36명의 국민과 함께 당 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이 전 대표의 제명 징계 관련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해당 서명에 동참한 이들이 함께했다.

안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의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신

에 빠져 갈등을 빚다 징계를 당하고도,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며 내부 충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입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지켜주고 대접해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다"며 "언제까지 이 응석받이가 당에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둘 건가. 지켜보고 계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나"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강서구 지원 유세 도중 불거졌던 자신의 '욕설 논란'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뜨렸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비판 성명을 냈다며 "강서구청장 선거 때 이준석이 우리 당에 저

지른 가짜뉴스 사건은 선거 방해 공작"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준석을 내버려 두면 내년 총선에서도 당에 또 내부 충질을 할 것이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방송에 출연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것"이라며 "이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는 몇 퍼센트로 질 거라고 예언하는 이준석보다,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는 사람이 우리 편"이라며 "지역구 자기 선거, 그것도 예측 못 하는 마이너스 3선인 이준석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에서 갑자기 도사급으로 취급받는 모습은 참으로 기묘하다"고 비교했다.

/ 홍순석 기자

## 민주노총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는 '죽음의 일터' 방치하는 것"

###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 움직임에 반발... "10만명 서명운동 시작"

중대재해처벌법의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추가 유예 가능성이 제기되자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6일 국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쳐온 윤석열 정권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연기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나섰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2천45명에 달



에 처하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추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현장에서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들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 김유정 기자

##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

###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

예규, 판례 등의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약속 드리며, 정확하고 문제없는 세무신고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의 기업이념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원활한 소통, 빠른 피드백 등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최선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세불복지원

경정청구

상속, 증여세 자문

세무조사지원

세무신고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58 업무 A동(신한은행 건물) 10층

| 전화 | 02)532-0456 | 팩스 | 02-532-0121

# 與 사무총장 TK재선 이만희·정책위의장 수도권 3선 유의동

## 지명직최고위원 김예지·조직부총장 원외 함경우·여의도연구원장 경기 재선 김성원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에 대구·경북(TK) 출신 재선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임명됐다.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수도권 3선인 유의동(경기 평택) 의원이 내정됐다.

김기현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확정했다고 정광재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번 인선은 이틀 전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일괄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사무총장은 내년 4·10 총선 공천의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핵심 당직이다.

이 신임 사무총장은 경찰대를 나와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고,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후 당 정책위 수석부장을 맡아 왔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



12일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시 대선 후보의 수행단장을 지내 진윤(진윤석열)계 쪽으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의총 추인을 받아 임명하는 자리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화상 의

총회를 열어 유의동 정책위의장 내정자를 추진한다.

유 내정자 역시 비교적 계파색이 없지만, 당내에선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는 김 대표가 원내대표이던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정책위의장을 지

바 있다.

김 대표는 전날 “인선은 통합형, 그리고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진 배치된 형태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여성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이 임명됐다. 시각장애자인 김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활동을 해 왔다. 조직부총장에는 앞서 한 차례 조직부총장을 지낸 바 있는 함경우 경기 광주시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

내년 총선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는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경기도 재선인 김성원 의원이 임명됐다.

수석대변인은 강원 원주갑 조선 박정하 의원이, 선인 대변인은 현재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윤희석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이 각각 맡는다. 전략기획부총장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인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 송유영 기자



## 홍익표 “尹 대학동문’ 양평道 휴게소 특혜 의혹 진상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6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휴게소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대학동문이라는 이유로 수년간 특혜를 입은 업체에 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막대한 혜택까지 몰아준 비상식적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을 밝혀야”고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의 국감 자료를 인용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상면 중점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 건설되고 있는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대통령 대학동문이 운영하는 업체에 석연치 않게 넘어갔다는 의혹이 있다”며 한국도로공사가 새로운 운영방식을 갑자기 도입해 이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도로공사가 229억원을 들여 남한강 휴게소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올해 뒤늦게 민자 사업으로 전환해 15년 운영 기간을 보장해주는 특혜를 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국감 직전 노선 변경을 합리화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 자료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나 분석 결과에 왜곡·조작이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기거나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특혜와 반칙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남북 간 우발적 충돌과 북한의 도발을 방어하기 위한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 하려고 정부·여당이 이번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황순길 기자

## 윤재옥 “野,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해야 北 눈치보기는 과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과 관련해 “국회도 이제 북한인권재단 공전 사태를 끝냄으로써 북한과 국제 사회를 향해 분명한 인권 수호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참

상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는데 이에 못지않은 비극이 북한에서 발생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 의장을 상대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민주당에 이사 추천을 촉구

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인권 중 왜 북한 주민 인권만은 예외가 되는지는 질문을 국민은 7년 동안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북한 인권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 북한 정권 눈치보기를 하며 이사 추천을 미룬다면 민족의 고통 앞에 무거운 과오를 범하는 일임을 명심하라”며 이사 추천을 촉구했다.

앞서 북한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는 중

국 라오닝성과 지린성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명이 지난 9일 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다수 북한 주민 송환이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 12조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장은 국회 여야 동수로 추천받아 구성하게 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 조규현 기자

## 정의당, ‘이정미 지도부’ 유지…“11월 재창당 준비 주력”

### 11·19 당대회 이후 ‘총선 지도부’ 교체 가능성



정의당 정책자문단 발족식

정의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책임론이 불거진 ‘이정미 지도부’ 체제를 다음 달 19일 열릴 ‘재창당’ 당 대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단 현 지도부 체제를 이어나가기로 최근 시도당 연석회의 등에서 의견이 모였다”며 “지도부는 11월 19일

당 대회 때까지 재창당 준비 작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이번 보선 참패를 두고 지도부 사퇴론이 일었다. 정의당 후보의 득표율은 1.83%로, 원내 1석인 진보당 후보(1.38%)와 비슷한 수치였다.

당 관계자는 “이정미 대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당 구성원의 대체적 의견은 현 지도부로 당 대회를 치르자는 것”이라며 “11월 당 대회 이후 ‘총선 지도부’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지난 6월 녹색·노동·제3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재창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의당은 ‘당명 개정’을 포함한 구체적 재창당 플랜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 오정수 기자

## 선관위, ‘관련선거 주장’에 “국정원과 합의된 점검도구 삭제”

### 野 “국정원이 철수하면서 도구 심어놓아”…선관위 “기술적 한계로 2개 남았던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과 의 합동 보안점검 종료 뒤 선관위가 시스템에 남아있던 점검도구(툴) 2개를 삭제한 것을 언급하며 “국정원발 관련선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국정원 등과 합의된 보안 컨설팅 후속 조치 과정의 일부였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보안 컨설팅 종료 후 합동으로 선관위 시스템 내부에 설치했던 점검 도구를 삭제했다”면서 “다만 모든 점검 도구들을 즉시 삭제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기로 (국정원과)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점검 도구 2개를 발견해 삭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보안 시스템을 조사한 후 철수하면서



심어놓은 툴이 2개 있었고, 선관위가 이를 발견해 삭제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국정원발 관련 선거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국정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합동 보안점검을 진행한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한 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 민영환 기자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행복이 되도록**

고객 한분 한분의 모든 하루, 나아가 푸른 자연까지 모두가 행복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한화손해보험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 ESG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의 ESG 경영**

PEOPLE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PLANET 글로벌 기준의 친환경 경영 생태계 조성 동참 PROSPERITY 디지털 혁신 기반 지속가능 투자 GOVERNANCE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조성

# “도박 빛 값으려 계획 범행” 대전 신협 강도 구속기소

대전의 한 신협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른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다 붙잡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6일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혐의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 3천900만원을 빼앗은 뒤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훔친 오토바이와 택시 등 여러 이동 수단을 바꿔 가며 CCTV가 없는 길만 찾아 도주로를 확보하고, 옷을 여러 차례 갈아 입고 장갑을 끼 지문을 남기지 않는 등 경찰 수사를 교묘히 피해 왔다.

결국 범행 이틀 만에 베트남 다낭으로 출국했고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



경찰서로 들어가는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

(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 사건 발생 23일 만인 지난달 10일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한화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2021년 1

월까지 지난 8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 파산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도박에 이용된 금액은 40억원 상당으로, 그 과정에서 수억 원의 채무를 치고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청원경찰이 근무하지 않는 신협 지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당초 사업상 지게 된 빚 때문에 즉흥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인터넷 도박 중독과 그로 인한 채무가 주된 범행 동기임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송진영 기자

# 기단에 놓인 정율성흉상 또 떨어뜨려 보수단체 회원 입건



또 훼손된 정율성흉상

보수단체 회원이 광주 정율성거리에 있는 정율성흉상을 재차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6일 재물손괴 혐의로 보수단체 회원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4일에도 오전 1시 30분경

광주 남구 양림동에 있는 정율성흉상을 기단 위에서 떨어뜨려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흉상 목 부분에 밧줄을 묶은 A씨가 이를 승합차에 연결한 뒤 쓰러뜨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지난 2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흉상을 기단 위에서 떨어뜨렸다.

흉상은 지난 12일 신원 미상의 인물에 의해 기단 위에 올려졌으나, 다시 A씨에 의해 바다에 떨어진 상태이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반대하기 위해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영민 기자

# ‘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측, 법정서 “도주 의도 없었다”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27)씨 측이 법정에서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 공판에서 “도주의 범의(범행 의도)를 갖고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닌 만큼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신씨 측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나머지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목격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신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10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

태에 빠뜨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오후 8시 시술을 병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항정신성의 약품을 두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

에서 차를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사고 후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건물 잔해물만 일부 치우다가 6분 뒤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그는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러 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과 관련해 말을 맞추려 현장을 떠났다고 본다.

신씨는 사고 당일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 등 7종의 항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모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두 차례 마약 전력이 있다. 경찰은 사고 9일 뒤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뒤 신씨는 구속됐다.

/ 백서연 기자

# 법원 “황일봉 5·18부상자회장, 집행부 직위해제 권한 없어”



사무총장·조직국장·상벌위원장·상벌위원 등 집행부 7명을 회장 직권으로 직위 해제했다. 직위해제 당한 집행부 중 6명은 황 회장에게 집행부 직위해제 권한이 없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이 자신을 징계하려는 집행부 일부를 직위해제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광주지법 민사2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16일 공법 단체인 5·18부상자회 간부 6명이 황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부 6명 중 4명에 대한 황 회장의 직위해제를 분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신청은 각하·기각했다.

황 회장은 지난달 7일 자신을 징계하려는 상벌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

재판부는 “사무총장, 상벌위원 등은 임기 4년이 보장된다”며 “회장 지명에 따라 임명됐더라도 직위해제 권한까지 회장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각하·기각 결정한 2명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사직했거나, 직위해제 사유가 있다고 봤다.

황일봉 회장은 이사회 의결 없이 단독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달 초 개최된 부상자회 임시이사회에서 ‘권리를 5년 동안 정지한다’는 사실상 직무 정지 징계를 받았다.

/ 강희준 기자

# 선거사범 피의자에게 검찰 재수사 상황 알려준 경찰 유죄 상황 알려준 경찰 유죄

## 재판부 “비밀누설 인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자신이 불송치 처분한 사건 피의자에게 검찰의 재수사 상황을 알려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서희경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부산 한 경찰서 A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부산시교육감 선거 당시 홍보를 위해 금품을 건넨 전 대학 총장 B씨와 관련된 사건에서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자 피의자인 B씨를 비롯해 변호사 C씨에게 재수사 요청 등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경위는 당시 B 전 총장에게 “검사한테 재수사 요청이 내려왔는데 내용이 심각하다”며 “검사 생각이 틀렸다는 추가 의견서를 빨리 만들어서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A 경위는 재판에서 “당시 검사의 범리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재수사 요청을



수긍할 수 없었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의자에게 재수사 요청 취지를 상세하게 전달한 것이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관이 전달한 이 사건 재수사 요청 내용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로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법 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과 이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다른 유착관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채형민 기자

대한민국 사장님~ 아직도 모르세요?

# 중소기업 공제기금

**KBIZ**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교환 2번) | fund.kbiz.or.kr



☑ 단기운영자금 대출  
부금의 최대 3배 이내

☑ 비대면 원클릭 대출  
부금의 최대 1.5배 이내

☑ 노란우산 연계 대출  
최대 2천만원(연4.5%)

☑ 어음·수표 대출  
부금의 최대 7배 이내

홍보대사  
이용식

# 바이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다시 점령한다면 큰 실수 될 것”

## 지상전 임박 속 발언 주목...“이스라엘에 모든 것 지원, 美 파병은 불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다시 가자지구를 점령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공개된 미국 CBS 방송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 '60분' 전문에서 지난 7일 하마스 기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교전과 관련, '현시점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점령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그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가자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내 견해로는 하마스나 하마스의 극단적 분파들은 팔레스타인 주민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며 "이스라엘이 가자를 다시 점령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스라엘군(IDF)은 2006년 1월 평화협정 이행을 위해 중동전쟁 때 이집트로부터 가자지구를 점령한 이후 38년 만에 주둔 병력을 철수하고 유대인 정착



조 바이든 대통령

촌 20여곳을 떠난 바 있다. 이후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통제에 놓였으나 하마스가 2007년 6월 내전 끝에 서안지구에 근거지를 둔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따르던 파타 세력을 축출, 가자지구를 점령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에 대해 선명한 반대 목소리를 낸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전 돌입이 임박한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전면 해체 입장에 지지를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민간인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전쟁 규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하마스는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팔레스타인 국가로 가는 길은 반드시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 지원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미 병력의 이스라엘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 새로운 중동 전쟁에 미군 파병을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투력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에 대해서는 "국경을 넘지 말고 전쟁을 고조시키지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란이 하마스 공격을 지원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란은 지난 14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될 것이라고 자국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관리하면서 국제적 방어를 유지할 수 있다"며 다만, "중동 불안으로 인해 미국 내 테러 위협이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시간이 필요할 뿐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송원기 기자



아이들 안고 대피하는 가자지구 주민들

# 이·팔 전쟁, 가자 이미 생지옥 WHO “사망자 60%가 여성·어린이”

## 병원연료 불과 24시간분 지상전 없어도 수천명 사망 우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공격에 대해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전면 봉쇄에 나서면서 등 가자지구의 상황이 극도로 악화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의 한 관리는 지난주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사람의 60%가 여성과 어린이였다고 밝혔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9일째를 맞은 이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에서 집계된 사망자는 4천명을 넘어섰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저녁까지 집계된 누적 사망자가 2천670명이라고 밝혔다. 부상자는 9천600명이다.

이날까지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1천 500여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앞두고 이날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안전을 위해 남부로 대피하라고 통보하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주민 100만명 이상이 남쪽으로 피란길에 올랐으나 피란 도중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우려하는 주민과 이동이 어려운 환자나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은 여전히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유엔 기구들은 봉쇄 상황에서 대규모 대피는 재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구호단체 적신월사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대피령을 내렸지만, 대피할 방법이 없다면서 가자시에 있는 한 병원의 경우 300명의 환자가 운데 일부는 중환자실에 있고,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 김원호 기자

광고 문의 : 1533-1545

# 일본 경제산업상, A급 전범 합사 야스쿠니신사 참배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16일 오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17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제사인 추계예대제(例大祭·祭)를 앞두고 이날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국가와 가족을 생각하며 전화(戰禍)에 쓰러진 영령의 안녕을 빌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비로 다마구시(玉串·비즈기나루 가에)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봉납했다고 밝혔다. 집권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에 속한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지난해에도 패전일(8월

15일)과 추계 예대제 직전, 그리고 올해도 패전일 직후인 8월 21일 각각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취임 후 그동안 직접 참배하지 않고 다마구시 대금을 봉납해 오고 있다.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천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고 있다.

그중 90%에 가까운 약 213만3천 위는 태평양전쟁과 연관돼 있다. 극동 국제군사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 권정석 기자



니시무라 일본 경제산업상

# 러시아 외무장관, 中 방문...지난달 이어 왕이와 회담 예정

## 제3회 일대일로 정상포럼도 참석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6일 중국을 방문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라브로프 장관이 러시아 대표단 일원으로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오는 17~18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3회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를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포럼에 참석하고,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날 예정이다.

라브로프 장관과 왕이 부장은 지난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회담하며 양국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7일 일대일로 정상포럼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틴



중국 베이징 도착한 러시아 외무장관

대통령의 해외 방문은 최근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독립국가연합(CIS) 정상회담 참석 이후 두 번째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중앙TV(CCTV)와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은 세계가 인정하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 배중호 기자

# 日 기시다 내각지지율 출범 이후 최저...3% 넘는 고물가 등 영향

## 아사히 조사 29%로 지난달 37%서 급감...요미우리도 34%로 감소세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 지지율이 현지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2021년 정권 출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사히신문은 14~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천64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29%로 지난달(37%)보다 8% 포인트 하락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아사히 조사 기준 2021년 10월 기시다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였다. 기존 최저 기록은 작년 12월의 31%였다.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34%로 지난달 조사보다 1% 포인트 내려가면서 역시 정권 출범 후 최저로 나타났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마이니치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문(25%), 교도통신(32.2%), 지지통신(26.3%)의 이달 조사에서도 모두 출범 후 최저치치를 경신했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영향 등으로 한때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출범 3년 차를 맞이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이처럼 떨어지는 이유는 물가 상

승으로 인해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상승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 연속 소비자물가가 3% 이상 올랐다.

또 일반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 도입 혼란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개각과 집권 자민당 인사로 지지율 반등을 노렸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고물가에 대응한 전기·가스요금, 휘발유 가격 부담 경감에 더해 반도체 등 중요 물자의 국내 생산 지원 방안을 담은 새로운 경제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 조성훈 기자

World EXPO 2030 BUSAN, KOREA SK WAVE

다시 온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ww.thewave.net

### 우리가 그리는 2030부산엑스포는 어떤 모습일까요?

2030부산엑스포를 통해 기후변화, 양극화와 같은 인류가 마주한 문제를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SK도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실력 있는

기업들이

마침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1:1 밀착 멘토링에서 투자유치까지  
**IBK 창공**

혁신·벤처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디지털 경영지원 플랫폼  
**IBK BOX**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3947호(2023.08.29) 유효기간(2024.08.28)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은 금융·항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02-720-7490 | mail : ibkethics@ibk.co.kr

# 대출비교 플랫폼 뜨자 2금융권 수수료 부담 낮아졌다

## 2020년 1.56%서 올해 1.44%로 수수료율 하락...연 143억원 절감 추산

핀테크 업체의 대출비교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제2금융권 제후사의 수수료 부담이 연 100억원 넘게 절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토스·카카오뱅크·네이버페이·핀다·뱅크샐러드 등 5개 플랫폼의 대출비교 서비스가 제2금융권에 받는 평균 수수료율은 2020년 1.56%에서 2021년 1.49%, 2022년 1.48%, 2023년 상반기 1.44%로 낮아졌다.

올해 상반기 플랫폼에서 중개된 신규 취급액이 5조9천635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제2금융권이 연말까지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2020년 대비)는 약 143억2천만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상반기 수



수는 제2금융권이 오프라인 대출모집 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2.62%·1천만원 대출 가정)의 절반 수준이다. 플랫폼의 상반기 취급액 5조9천635억

원이 오프라인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금융사 수수료 부담은 703억7천만원가량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2금융권의 평균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동안 1금융권의 평균 수수료율은 2020년 0.22%에서 올해 상반기 0.34%로 오히려 0.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비교 서비스가 고도화하면서 플랫폼 간 활발한 경쟁 효과가 플레이어가 한정된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올해 5월 개시한 대한대출 서비스는 2개월간 5대 플랫폼의 제2금융권 수수료율이 1.11%로, 대출비교 서비스 수수료율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취급액은 125억7천만원이었다. 업계에서는 향후 대출대출-대출비교 서비스 저변이 확대되고, 플랫폼 간 경쟁이 활발해지면 수수료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신정운 기자



## LGU+, 화물운송 중개 플랫폼 ‘화물잇고’ 공개

LG유플러스[032640]가 화물운송 시장의 디지털 전환(DX)에 뛰어들어, 관련 매출을 3년 내 1천500억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16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용산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택배 수준의 편의성’을 기치로 내건 화물운송 중개 플랫폼 ‘화물잇고’를 공개했다.

이 플랫폼은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수거하는 ‘퍼스트마일’과 최종 고객에게 배송하는 ‘라스트마일’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미들마일’ 시장에 집중한다.

미들마일은 주로 판매자에서 물류센터까지 기업간거래(B2B) 운송을 뜻한다.

통계청 집계로 화물운송 시장 규모는 2020년 연 37조원에 이르지만 전화 접수와 운송장 수기 작성, 프로세스 없는 배차 시스템 등 아날로그 요소가 남아있어 비효율과 갈등이 지속됐다.

화물잇고는 화물 중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윈스톱으로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배차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했으며, 스마트 배차 관리 및 실시간 운송 관제 서비스를 마련한다. 정산 및 실적 관리 시스템도 운영하며, 업계 최초로 플랫폼에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 기능도 구현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전략적 협업으로 전국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의 성장 전략도 발표했다.

수개월간 이뤄진 실증 과정에는 화물 내비게이션·물류 실무선 기업 ‘로지스텍’이 참여했으며, 화물운송 중개 기업 ‘강동물류’, 디지털 물류 스타트업 디비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고객 확보와 운송 최적화 쪽에서 협력한다. 안전하고 빠른 정산을 위해 신한카드와 화물 운송료 전용 결제 카드도 도입한다. 화물잇고는 이달 중 정식으로 출시된다.

임장혁 LG유플러스 신사업그룹장(전무)은 “상생하는 화물 시장 생태계를 빠르게 조성하고 아날로그 시장에 물류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 손현수 기자

## 보험료 낮춘 반려동물보험 출시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 추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장범위를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가 검토되고,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이 허용된다.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 반려동물보험 가입과 보험금 간편청구, 건강관리 및 등록 등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고, 동물병원의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와 고양이 등 국내 반려동물 수는 2018년 635만마리에서 지난해 799만마리(추산)로 늘어났다. 설문조사 등에 따르

면 반려견 감기 치료에 8만원의 치료비가 청구되는 등 고가의 동물병원 진료비로 인해 양육자의 83%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0.9% 수준으로, 영국(25%), 일본(12.5%)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개선안은 우선 반려동물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주관으

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고, 외형적 식별장치로는 개체 식별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비문과 흉체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를 추진하고, 진료항목 표준화, 다빈도 중요진료비 게시 등 기준에 추진기로 한 방안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로 했다.

/ 오준우 기자

## 하이트진로, 베트남에 첫 해외공장...“소주 세계화”



하이트진로는 내년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해외 생산 공장을 건립, ‘소주 세계화 사업’에 나선다. 하이트진로싱가포르의 베트남 소주 생산 공장 건립을 위해 베트남 타이빈성 그린아이파크 산업단지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이트진로가 해외 생산 공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이트진로는 글로벌 소주 시장 확대를 위해 지난 달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했고, 하이트진로싱가포르의 첫 사업으로 베트남 타이빈성에 소주 생산 공장 건립을 추진한다.

베트남은 물류 접근성이 좋고 인력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이트진로는 해외 소주 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상황에서 원가 경쟁력을 위해 이번 공장 건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6년간 하이트진로의 소주 수출량은 연평균 약 15%씩 증가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런 성장세가 이어져 10년 뒤에는 해외 소주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 강희찬 기자

## LS전선, 싱가포르서 1천억원대 초고압케이블 프로젝트 수주



LS전선은 싱가포르 전력청으로부터 1천130억원 규모의 초고압 케이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LS전선은 올해 싱가포르에서 누적 3천500억원 상당의 일감을 수주해 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

싱가포르는 송전탑을 세우지 않고 땅 밑을 지나는 지중 케이블만으로 전력망을 구축하고 있어 고부가가치 지중 케이블 사업 수주를 위한 글로벌 업계의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다.

LS전선은 2010년부터 싱가포르 시장을 적극 공략해 핵심 공급자 임지를 지키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케이블 납품부터 시공, 설치까지 아우르는 턴 키(turn key) 방식으로 진행된다. 케이블의 경우 230kV급 이상은 LS전선이, 66kV급 이상은 LS전선아시아가 공급한다.

LS전선 관계자는 “코로나 3년간 보류됐던 프로젝트들이 올해 재개됐다”며 “일반 소비재와 달리 내구성, 안정성, 신뢰성이 중요한 초고압 케이블 시장에서 안정적 품질 관리 등 고객 만족도 제고 노력을 통해 1위를 수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남연우 기자



## 삼성전자, 제트 청소기 장난감 증정 ‘젯.셋.고’ 챌린지

삼성전자는 무선 스틱청소기 ‘비스포크 제트 AI’를 통해 온 가족에게 즐거운 청소 문화를 제안하는 ‘젯.셋.고’(JET.SET.GO)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바로로 제작사 아이코닉스와 협업해 아이들에게 올바른 청소 습관을 길러줄 수 있도록 만든 ‘제트 청소기 장난감’ 출시를 기념해 챌린지를 마련했다.

기존 비스포크 제트 AI 사용자는 SNS 계정에 사용 후기를, 신제품 구매자는 구매 인증사진을 삼성닷컴 내 챌린지 페이지에 인증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각 100명에게 비스포크 제트 AI의 외관 디자인 그대로 제작한 제트 청소기 장난감을 증정한다. / 신지호 기자

모빌리티, 새로운 내일을 그리다

누구에게나

새로운 경험을 주거나  
놀라운 혁신이 되거나  
소중한 추억을 주는  
모빌리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질 수 있도록

새로운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자식들 다툼 없이 상속은 잘 될까?  
내가 없어도 아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눈에 밝히는 자식에게 더 많이 물려줄 수 있을까?

# 나의 명예로운 인생 신한으로 신탁하다

## 신한 S Life Care 유언대용신탁

복잡하고 불안한 유산상속  
신한 S Life Care 유언대용신탁으로  
내 뜻대로 준비하고  
남은 인생을 편하게 누리세요

신한은행

SOL 상담신청하기



### 내 자산 내 뜻대로 명예롭게 상속하는 신한 S Life Care 유언대용신탁

#### 내 뜻대로 상속설계

고객 생전에  
본인의 의지와 뜻을 반영한 상속설계

#### 간편한 상속 절차

유언장 작성에 따른 공증 및  
복잡한 상속 절차 생략

#### 고객 맞춤형 컨설팅

다양한 신탁상품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자산증식 및 재산관리

#### 믿음직한 상속 집행

신한은행이라 믿을 수 있는  
신속하고 안전한 상속 집행

■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신한 S Life Care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도 민법의 유류분 청구권이 보장됨에 따라 유류분 침해와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한 S Life Care 유언대용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신탁 계약은 자산가액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점 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방법 등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99-8000)에 문의 바랍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3531호 (2023.09.25~2023.12.31) ■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3-14365-1호 (2023.09.18~2024.09.18)

# 오세훈 “이태원 참사 1주기 맞아 안전조치 논의·평가”

## 서울시 국정감사 인사말...“기후동행카드 내년 하반기 본격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시의 대책과 안전조치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어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후속 안전조치를 착실히 이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증가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는 “치안 취약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지능형 폐쇄회로(CC)TV와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안전 사각지대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오 시장은 핵심 시정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은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간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본격화해 2025



오세훈 서울시장

년 6월까지 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성과평가와 국제포럼을 통해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완성하고 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시가 발표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도입과 관련하여선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시민 만족도와 정책효과 분석,

경기도, 인천시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2024년 하반기에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오 시장은 서울의 풍부한 산업 인프라와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활용해 ‘글로벌 선도도시’를 구현하고, 도심·수변 등 서울 도시공간을 대개조해서 품격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감성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관람차를 건립하고 노들 예술섬을 조성하는 등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를 추진해 한강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 채우고 미래교통자원으로 한강을 활용하기 위해 서울항을 조성하고 리버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관광시장 회복세에 발맞춰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울관광 품질을 끌어올려 서울을 외래관광객 3천만명, 1인 지출액 300만원, 7일 체류, 재방문율 70%의 글로벌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밝혔

다. 또 “예술적 감성의 재미있는 디자인 설치물을 서울 곳곳에 설치해서 도시 전반에 상상력과 활력을 불어넣고 건축디자인 혁신을 통해 도시경관을 입체적·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수변 문화공간을 2025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조성하고 녹지 등 시민을 위한 공간을 대폭 확충하는 ‘서울 대개조’를 통해 서울을 일·주거·쉼터가 공존하는 삶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제시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후 ‘동행·매력 특별시’라는 시정 기조 아래 민생 전 범위에 걸쳐 사각지대를 메우는 정책을 본격 추진했고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정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서울시 발전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 송원기 기자



## 2030부산엑스포 응원송 ‘킵 고잉’ 공개

가수 추가 참여한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응원송 ‘킵 고잉(Keep Going)’ 합창 영상이 제작됐다.

부산시는 가수 추와 2030부산엑스포 글로벌 서포터즈가 함께 부른 ‘킵 고잉’ 합창 영상을 16일 부산시 유튜브 채널과 2030부산엑스포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공개했다고 밝혔다.

킵 고잉은 이범훈과 Elum의 공동 작사·작곡과 프리즘필터의 프로듀싱으로 제작됐다.

발랄한 신스 사운드와 동화 같은 테마가 돋보이는 곡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 부

를 수 있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편안한 가사가 특징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는 엑스포를 부산의 푸른 바다에 유치하고, 모두의 소망을 함께 하고 싶다는 바람을 담았다.

추는 ‘BUSAN EXPO KEEP GOING(부산 엑스포 킵 고잉)’이라는 문구가 적힌 2030부산엑스포 유치 응원티를 글로벌 서포터즈와 함께 입고 이번 합창 영상 촬영에 참여했다.

추와 서포터즈의 메이킹 영상도 2030 부산엑스포 홈페이지와 SNS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 김채원 기자

## 제주 향토음식 ‘말고기 대중화 전담팀’ 구성...생산·유통 관리

### 저열량에 고단백 기반시설 구축, 음식점 인증제 지원



말(馬)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주에서 말고기 소비 대중화를 위한 전담팀이 운영된다. 제주도는 마육산업 전문가가 참

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말고기를 제주 대표 향토음식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마육산업 생산 기반 시설, 말고기 냉장 유통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전문 비육과 생산목장을 설치할 방침이다. 제주 말고기 판매 도지사 인증제, 인증점 시설 개보수 지원, 홍보사업 등도 지속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5개 사업에 13억5천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축산진흥원과 축협, 제주 말고기 판매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육 소비 대중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말 사육 산업이 발달한 제주에서는 국내 말고기 70% 이상이 생산·소비되는 등

말고기가 향토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말고기는 저열량에 고단백 식품으로, 전문적인 비육 과정을 거치면 쇠고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담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산 말고기를 지역 대표 향토 음식으로 육성하는 등 마육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권호성 기자

## 울산 시가지 7개 교량, 가을꽃 ‘웨이브 페츄니아’로 단장

울산농업기술센터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가지 주요 교량에 가을꽃이 심어진 꽃걸이를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꽃걸이가 설치된 교량은 신삼교, 번영교, 학성교, 명춘교, 동천교, 외솔교, 삼일교 등 7개로 총 4.8km 구간이다.

이들 교량에는 웨이브 페츄니아 총 6만 포기다 식재됐다.

이 꽃은 분홍빛의 꽃이 피며, 자라면서 길게 늘어지는 모양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당신과 함께라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네요’라는 꽃말처럼 교량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편안함과 함께 아름다운 가을꽃의 정취를 제공할 것으로 농업기술센터는 기대한다.

/ 신재일 기자

## 전국체전 경기장서 1만7천 전남도민 응원단 ‘활약’

제104회 전국체전이 열리는 전남지역 경기장 곳곳에서 전남도민 응원단이 활약하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개막해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열전에 들어간 전국체전 경기장마다 모두 1만7천여 명으로 구성된 전남도민 응원단이 자원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17개 시도 선수단과 해외 동포 선수단을 경기장마다 특색 있는 문구와 도구를 활용해 응원한다.

경기장 질서 유지와 경기 후 환경 정리도 한다. 타시도 선수단이 이들의 열렬한 응원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서울시 소속 참가 선수단 관계자는 “경기장에서 따뜻하고 열띤 응원을 해준 도민응원단의 환대에 깊이 감동했다”고 말했다.

도민응원단으로 참가한 한 목포시민은 “TV에서만 보던 스타 선수를 가까이서 보며 직접 응원도 하게 돼 기쁘다”며 “전남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지만, 다른 지역 선



수들도 제 기량을 발휘하도록 모두에게 아낌없는 응원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응원단은 다음 달 열리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도 응원 열기를 이어간다.

강인중 전남도 전국체전기획대장은 “대회 참가 선수들에게 가장 힘이 되고 있다”며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한 마음 한뜻으로 열과 성을 다해주는 응원단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 남정희 기자

## 저출산 시대 엄마들 격려한다

### 양산시 ‘아이사랑 육아 대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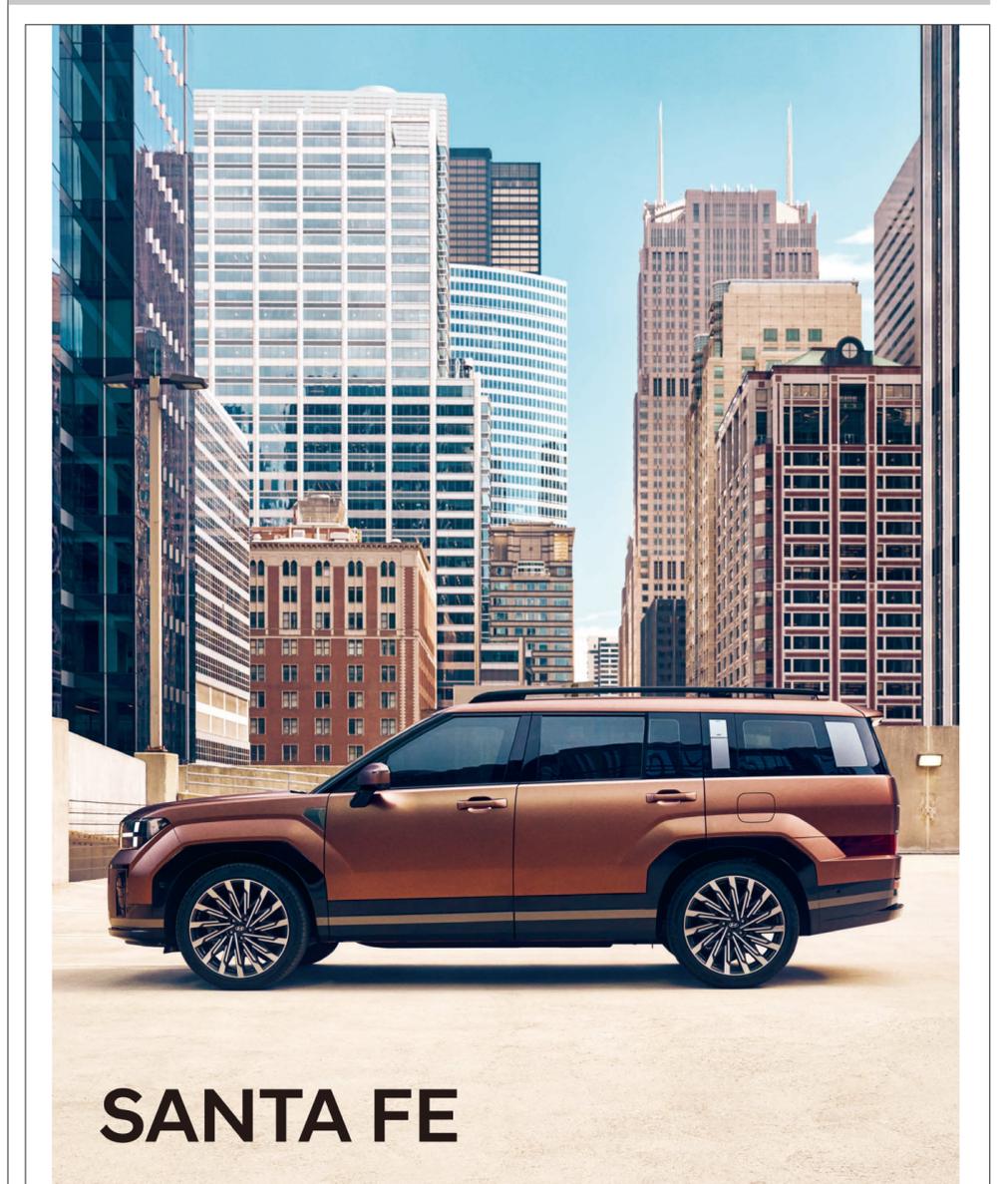
경남 양산시는 저출산 시대 육아로 지친 엄마들을 격려하기 위한 프로그램 ‘2023 양산시 아이사랑 대축제’ 힐링 캠프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가족 안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제공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아주 특별한 휴식, 힐링해요! 캠프’를 내달 11~12일(1기), 18~19일(2기) 1박2일 일정으로 연다.

이번 캠프는 기수별 40명씩 운영된다.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숲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양산 숲에서’에서 걷기명상·구름명상·요가·아쿠아테라피 외에 손케어·타로카드 등 신선치유프로그램, 양산시 행복한 임신·출산·육아일기 공모전 작품상 및 한밤의 레크리에이션, 나에게 맞는 색깔맞이 ‘퍼스널컬러’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홍은주 기자



강정숙 양산시 여성청소년과장은 “아주 특별한 휴식을 통해 비슷한 고민을 가진 엄마들과 함께 모여 고민을 이야기하고 위로받는 다양한 활동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 SANTA FE



Bluehands 고객에게는 항상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상속, 증여, 세금?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

# 우리에게 신탁하세요

고객을 위한 전문가들의 종합컨설팅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우리WON뱅크  
다운로드 하기

## 마음을 기록하다,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상속재산 배분	걱정 없는 증여플랜	고령사회 대비 자산관리	사회적 책임 실현	생애 종합자산관리
신탁된 재산을 고객님의 의지대로 신속 정확하게 집행	재산 증여 후에도 일정 기간 통제 가능	향후 치매·질병 발생 시에도 안전한 자산관리 가능	장애인사랑신탁, 우리나눔신탁 등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및 최적의 플랜 제시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자산 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이익 또는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는 고객님께 귀속됩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수수료, 중도해지, 운용방법, 계약종료 등), 고객님은 신탁계약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하시기 전에 수수료, 중도해지, 계약종료 등에 관하여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중도해지 수수료는 신탁재산(운용자산)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신탁 상품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4515(2023.05.24~2023.12.31)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2038호 (2023-06-07 ~ 2024-06-06)

# 천안시, 미국 실리콘밸리 3개 기업과 '디지털 인재육성' 협약

충남 천안시는 지난 13일(현지 시각)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국혁신센터(KIC) 실리콘밸리'에서 씨야, 에이앤케이, 코싸인온 등 3개 글로벌 벤처기업과 '천안형 스타 디지털 인재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와 3개 다국적기업, 사업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블루문드림'은 협약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 지원과 글로벌 현장 체험 및 실습 기회 제공, 교육과정과 교재개발에 따른 자문 및 지원, 소프트웨어 분야 신규 인력 채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천안형 스타 디지털 인재양성사업은



기념촬영하는 박상돈 시장(앞줄 왼쪽 5번째)과 관계자들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미래인재 서 선제적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다. 양성을 위해 천안시가 기초자치단체 중에 사업에 따라 지난 8월 천안지역 청년뿐

아니라 12개 대학 학생과 대학원생 중 4명을 선발하고,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3개 기업에 각각 3개월간의 해외인턴십 근무 기회를 제공한다. 해외인턴십 과정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 등으로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청년 인재풀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천안 청년들이 세계적 기술혁신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에서 인턴 경험을 쌓고 스마트한 글로벌 지역인재로 자리매김해, 스타 멘토로서 후배를 양성하며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곽현욱 기자



도봉구 직원이 1인가구를 방문해 실태조사하는 모습

## 도봉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해결한다 내년 2월까지 실태조사 착수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사회적 고립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위기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조사와 고독사 위험군 판단 조사를 병행해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난 2021년, 2022년 실태조사 양식을 간소화해 대상자의 높은 응답률을 얻고자 기획했다.

조사는 ▲ 주거취약지역 거주 중장년 1인가구 중 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세대 ▲ 2022년 사회적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다. 직접 방문해 생활 여건과 지원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올해는 기존 '1인가구 실태조사표'에 ▲ 비상연락처 ▲ 카카오톡 채널 도봉구

가구 발굴플랫폼 추가 여부를 추가했다. 은둔·고립 성향이 있는 1인가구의 비대면 도움 요청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태조사 결과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는 '우리동네돌봄단', '봉구네 희망씨 근무자' 등 지역 인적 자원망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를 연계하고, 스마트 돌봄 시스템을 통해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고독사 비위험군에 대해서는 본인 희망 시 위험군에 상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오언석 구청장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생활 환경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 한 명의 구민도 소외됨 없도록 앞으로도 구민 결 가까이, 구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민재 기자

## 경북도 "신공항 화물터미널, 2개 이상 설치안 검토 중" 터미널 대구 군위 설치 계획에 경북 의성 반발 '갈등'



대구경북 신공항 민간공항 조감도

경북도는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커지자 15일

"항공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공항에 화물터미널을 2개 이상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날 아침 미국 출장 중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신공항 수송기 전용 화물터미널과 여객기 수송 화물터미널 분리 방안 마련'을 언급했다. 도는 신공항이 항공 물류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니즈에 맞게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조성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에 화물터미널을 복수로 설치하고 화물 종류에 따라 활용을 달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화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일정 거리 운송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바이오·백

신 콜드체인이나 신선 농산물 등은 신속한 운송과 통관이 필수적이라 물류단지과 화물터미널이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실제로 세계 항공화물 물동량 10위 이내의 대표적 물류 공항들에 화물터미널이 2개 이상 설치돼 있으며 물류단지도 연결해 있다"며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제안된 화물터미널에 더해 바이오·백신 콜드체인 및 신선 농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추가의 화물터미널을(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의성 지역에 설치하는 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대구시 군위군과 경북도 의성군이 공동으로 유치해 두 지역에 걸쳐 건설 예정인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을 군위군의 의성 배치를 주장하며 대구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 박정훈 기자

## 안산시, 출생지원금 확대...셋째 이상 300만원→500만원

경기 안산시는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셋째 아이 이상 출생축하금을 기존보다 200만원 인상에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면 정부지원과 별도로 시가 5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첫째 아이 100만원, 둘째 아이 이상 3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출생축하금을 받으려면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일 기준 연속해서 1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시는 내년부터 거주기간 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했다.

출생지원금은 자녀 출생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결혼 및 출산에 고민이 큰 엄중한 시기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타계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기반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가 시행 중인 임신·출산·육아 등 단계별 총 60여 개의 지원 및 감면정책은 안산시 출산·양육 사이트(<https://www.ansan.go.kr/loveyou/>)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양희진 기자

## 경기교육청, 다문화 학생 한국어 집중 교육 안산에 개원 후 도내 전역 확대...지역 협력 모델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사회와 함께 초·중·고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이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시설을 제공하고, 교육청이 프로그램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곳에서 한국어, 이중언어, 심리지원 등 다양한 교육이 단기형(60일)과 장기형(1학기) 형태로 진행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미해득에서 오는 학습 부진과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고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고자 이 학교를 추진했다.

17일 안산에 먼저 개원한다. 안산교육지원청이 직접 운영하며 이를 위해 퇴직 교원 4명을 채용하고 250차시 교재로 직접 개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달 동두천 개원에 이어 남양주, 시흥 등 도내 전역으로 한국어공유학교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 다문화가정 학생은 약 4만9천명으로 전국 26.2%를 차지해 가장 많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어 의사소통이 안 되는 학생은 2015년 2천676명에서 지난해 1만7천17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 노승만 기자

## 의령 500살 감나무에 감 열려 지역사회 "좋은일 있을 것" 기대

경남 의령군에 있는 수령 500년 된 감나무에 감 50여개가 열려 눈길을 끈다.

16일 의령군에 따르면 정곡면 백곡리에 있는 수령 500년 된 감나무에서 최근 감이 열렸다. 이 나무는 높이 28m, 가슴높이 둘레가 4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감나무다.

2008년 3월 감나무 중 최초로 천연기념물(제492호)로 지정됐다. 일반적인 감나무는 200~250년 정도 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나무는 두배 더 살고 있는 셈이다. 감 4개가 열려 관심을 모았던 2020년 이후 3년 만에 이 나무에서 다시 감이 열리자 마을 사람들은 '올해 의령에 좋은일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차 있다.

또 주민들은 때마침 감이 익고 지난 9일 막을 내린 국내 유일 부자 축제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이 성공을 거뒀기에 '감나무가 이를 예감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군 관계자는 "토양 개선과 영양분 공급으로 생산능력이 향상돼 감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며 "500년 된 나무에 감이 열리는 것은 신기한 일"이라고 전했다.

/ 민효성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SINCE 1965 NH농협생명

58년 동안 한결같이 고객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밝힌 NH농협생명.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두의 인생을 비추겠습니다.

100년 NH농협생명이 든든한 빛이 되겠습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NH농협생명이 응원합니다

내맘같이 NH농협생명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 고객 보호는 신한의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금융은 안전한가요?

원하는 것을 마음 놓고 이룰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어떤 신한을 만나더라도  
당신의 금융을 가장 먼저 지키겠습니다.

신한의 중심에 소비자 보호를 바로 새기다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SI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 프로야구 3~5위 경우의 수 36개 중 'NC 3위'가 23개...두산 희박

## SSG·두산은 맞대결서 4위 싸움 벌이며 NC 결과 확인해야

2023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3~5위는 정규시즌 마지막 날인 17일에 가려진다. NC 다이노스가 3위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만, SSG 랜더스와 두산 베어스에도 기회는 있다.

또한, SSG와 두산은 준플레이오프에 직행하는 3위를 놓치더라도 '1승'을 안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나설 수 있는 4위는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간절함을 느낀다.

NC, SSG, 두산 모두 2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3~5위 경우의 수는 총 36가지다.

16일 아침을 '단독 3위'로 맞이한 NC가 3위를 차지할 경우의 수는 23개로 가장 많다. 4위 SSG가 3위로 정규시즌을 마칠 경우의 수는 10개, 5위 두산이 3위를 뛰어 오를 경우의 수는 3개다. NC는 16일과 17일 광주에서 KIA 타이거즈와 2연전을 치른다.

SSG와 두산은 16일 잠실, 17일 인천에서 맞대결한다.



10일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 선발 NC 페디가 아웃 카운트 한 개를 남은 상황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3위 확정 매직넘버는 NC가 쥐고 있다. NC는 KIA에 2승 또는 1승 1무를 거두면 SSG-두산전 결과와 관계 없이 3위로 준플레이오프에 직행한다.

하지만, NC가 1승 1패를 하면 SSG에도 기회가 생긴다. NC가 1승 1패에 머물고

SSG가 두산과의 마지막 2경기에서 2승 또는 1승 1무를 거두면, SSG가 3위에 오른다.

KIA와의 2경기에서 NC가 모두 비기고, SSG가 두산에 2승을 거둬도 SSG가 3위를 차지한다.

NC가 1무 1패나 2패를 고전하면 두산도 3위로 도약할 기회를 얻는다.

두산이 3위에 오를 경우는 단 3가지다. NC가 1무 1패를 하고 두산이 2승을 거두거나, NC가 2패를 당하고 두산이 2승 또는 1승 1무로 SSG를 누르는 상황이 오면 극적으로 두산이 준플레이오프에 직행할 수 있다.

NC가 5위로 떨어질 경우는 단 2가지로 매우 희박하다. NC가 2패를 당하고, 두산이 1승 1무 또는 2무를 하면 NC가 두산과 SSG에 밀려 5위까지 내려간다.

SSG와 두산은 4위를 확보하고서, NC의 결과를 지켜보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다. 4위 싸움은 SSG가 유리하다.

SSG는 남은 두산과의 2경기에서 1승을 거두면 4위를 확보한다. 반면 두산은 2승 또는 1승 1무를 거둬야 SSG를 제칠 수 있다.

/ 최준용 기자



## 전 세계 26세 축구 선수 중 최고는 김민재...No.1 센터백 잠재력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전 세계 26세 축구 선수 가운데 최고 기량을 가진 선수로 평가됐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16일 나이별로 최고의 선수를 한 명씩 선정해 발표했다. 예를 들어 23세 중에서는 엘링 홀란(맨체스터시티)이 최고의 선수고, 24세는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가 가장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라는 방식이다.

16세부터 36세까지 나이별 최고 선수를 선정한 가운데 김민재는 26세에서 1위를 차지했다. ESPN은 이 나이에서 김민재의 경쟁자로 프랭키 더용(FC바르셀로나)과 니콜로 바렐라(인터 밀란)를 지목했다.

그러나 이 매체는 "더용과 바렐라 모두 골 지역 근처에서 공격적인 임무를 많이 수행하는 현대적인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훌륭히 해내는 선수들"이라며 "그러나 두 선수 모두 그런 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민재는 유럽의 5대 리그에서 이제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한 선수"라며 "물론 나폴리에서의 한 시즌을 과대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SPN은 이어 "하지만 우리는 그가 앞으로 5년 이내에 세계 최고의 센터백 가운데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손흥민(토트넘)의 나이인 31세에서는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가 1위로 뽑혔고, 그의 비교 대상은 골키퍼 알리송(리버풀)이었다.

또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나이인 22세 중에서는 부카요 사카(아스널)가 최고의 선수로 지목됐다. 최고령인 36세 부문에서는 리오넬 메시(마이애미)가 가장 기량이 뛰어난 선수로 뽑혔다.

/ 박정민 기자

## 김주형,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 2연패...PGA 통산 3승째

### 3년 연속 한국 선수 우승...PGA 3승은 최경주·김시우 이어 세 번째



김주형(21)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처음으로 타이틀을 방어하고 통산 3승을 쌓았다.

김주형은 16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TPC 서머린(파71)에서 열린 PGA 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총상금 84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7개, 보기 2개를 묶어 5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 합계 20언더파 264타를 기록한

김주형은 이 대회 2연패와 투어 3승째를 수확했다. 우승 상금은 151만2천달러(약 20억5천만원)다.

한국 선수의 PGA 투어 대회 2연패는 2021, 2022년 AT&T 바이어린 벨슨에서 우승한 이경훈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아울러 임성재가 2021년 대회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린 이래 3년 연속 한국 선수가 이 대회 정상에 올랐다. PGA 투어에서 3승 이상 거둔 한국 선수로는 최경주(8승), 김시우(4승)에 이어 김주형이 세 번째다. 김주형은 지난해 10월 이 대회 우승으로 PGA 투어 사상 두 번째 어린 나이에 2승을 달성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당시 김주형의 나이는 만 20세 3개월로 타이거 우즈(20세 9개월)보다 빠르게 2승 고지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우즈가 좀 더 빨랐다. 타이거 우즈는 만 21세, 김주형은 21세 3개월에 3승째를 기록했다.

PGA 투어가 2024년부터 단년제로 편성됨에 따라 이번 대회는 2022-2023시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김주형은 사실상 시즌 2승째를 올린 것으로 계산된다.

공동 선두로 4라운드를 시작한 김주형은 3번 홀(파4) 버디로 단독 선두에 올랐고 4번 홀(파4)에서도 1타를 더 줄이며 좋은 기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5번 홀(파3)에서 보기를 적어내며 루드빅 오베리(스웨덴), 테일러 펜드리스(캐나다)에게 공동 선두를 허용하더니 6번 홀(파4)에서 연속 보기로 선두와 1타 차 공동 3위로 하락했다.

이후 파를 지켜나간 김주형은 전반 마지막 9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내 공동 2위로 반등했다.

10번 홀(파4)에서는 약 4m짜리 퍼트가 홀 왼쪽으로 비껴가 버디 찬스를 놓쳤으나 12번 홀(파4)에서 타수를 줄여 공동 선

두에 복귀했다.

에릭 콜(미국), 알렉스 노렌(스웨덴) 등 4명과 공동 선두에 있었지만, 챔피언 조에 속한 김주형이 라운드를 가장 덜 치른 상황이었다. 유리한 고지를 점한 김주형은 더 기다릴 것도 없다는 듯 13번 홀(파5)에서 곧바로 버디를 뽑아내며 19언더파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김주형은 세 번째 샷에서 과감한 침입을 시도했고, 이후 빛나간 공을 약 1.9m 거리에서 쳐 버디 퍼트를 떨어트렸다. 그러면서 경쟁 구도는 같은 조에 속한 애덤 해드윈(캐나다), 바로 앞 조인 테일러 펜드리스(캐나다)와의 3파전으로 압축됐다.

김주형은 해드윈, 펜드리스에게 1타 차로 추격받는 15번 홀(파4)에서 3.6m짜리 버디 퍼트를 떨어트리며 2타 차로 도망갔다. 해드윈도 곧바로 15번 홀 버디를 잡아 김주형을 1타 차로 압박했고 승부는 16번 홀(파5)에서 갈렸다.

버디 퍼트를 놓쳐 아쉬움을 드러냈던 김주형은 해드윈이 파를 놓치고 자신이 파 퍼트를 집어넣은 뒤 미소를 지었다.

/ 이철민 기자

## 수원 삼성, K리그 쿨컵 2연패...MVP 이세빈

프로축구 K리그 25개 모든 구단의 아마추어 여자팀이 경쟁한 2023 K리그 쿨컵에서 수원 삼성이 우승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충북 제천 축구센터에서 끝난 K리그 쿨컵 결승에서 수원이 대전하나시티즌을 3-0으로 꺾고 2연패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승팀 수원과 준우승한 대전은 트로피와 아디다스 공인구를 받았고, 대회에 처음 나온 김포는 페어플레이상을 받았다.

최우수선수(MVP)는 이세빈(수원), 최다 득점상은 11골을 넣은 김현선(수원)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K리그 쿨컵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여자 축구 저변 확대와 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10년 창설했다.

지난해부터 기존 여자 대학 대회에서 K리그 구단과 연계한 여자 풋살 대회로 개편됐고, 올해는 여자 6인제 미니 축구 대회로 열렸다.

/ 정윤석 기자



# “깨끗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 세상을 바꾸는 유니세프 하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가 많습니다.



매월 30,000원이면  
매월 27,500L의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어린이들을 위해 수질 관리를  
지원하고 펌프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일상을 플랫폼화하다



## LG유플러스 4대 플랫폼

초개인화된 맞춤형 통신 경험을 제공하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_너겟**

축구, 야구, 골프 등 모든 스포츠 팬을 위한

**놀이 플랫폼\_스포키**

아이의 배움습관을 키우는 국내 최초 맞춤 교육 서비스,

**성장케어 플랫폼\_아이들나라**

메타버스 공간에서 시친구와 실감나게 체험하며 학습하는

**Web 3.0 플랫폼\_키즈토피아**

LG유플러스의 4대 플랫폼이

모두의 일상을 원더풀하게 바꿉니다

